

사직공원, 감성 입혀 음악공원으로 조성

94년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음악·조명 어우러진 시설 설치 1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

일제강점기인 1924년 조성돼 1943년 조선시기계획령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사직공원이 조성 94년만에 공원조성계획을 대폭 변경한다. 사직공원은 1913년 조성

된 광주공원과 함께 광주 구도심의 대표 공원이다.

광주시는 4일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공공지원사업에 따른 광주시 사직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2조 규정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 결정(안)에 따르면 1990년 수립된 조성계획이 사직역사공원(남구 양림동

108-10 일원)을 아시아음악공원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 감성조명(스피커 겸용) 및 공원시설물을 정비해 잔잔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는 음악공원으로 조성한다.

8만5610.0㎡의 공원 면적 중 시설 면적이 3만201.9㎡에서 3만1004.1㎡으로 802.2㎡ 증가한다.

주요 시설은 도로·광장, 조명시설(그늘사령, 조명정자, 트리하우스, 화단 등), 휴양시설(휴게소, 관리소, 휴게데크), 운동

시설(공도장), 교양시설(사직단, 사직도서관, 애니메이션센터 등), 편의시설(주차장, 전망타워, 전망대, 매표, 화장실 등), 공원관리사무소 등이다.

녹지 면적은 5만4619.1㎡로, 녹지율은 63.80%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은 오는 17일까지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실, 푸른도시사업소 등에서 공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민과 함께 제설대책 현장점검

폭설 대비 선제 대응 당부

광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올해 제설대책과 도로 적사함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 폭설과 도로결빙에 대비한 시민안전대진단의 하나로, 지난 3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등 시민들과 함께 종합건설본부 본촌동 청사와 북구 신용동 이면도로 현장을 찾아 올 겨울 폭설에 선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건설본부 본촌동 청사를 방문한 이실장은 시민들과 함께 제설자재와 염수교

반기, 염수탱크, 살포장비 등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제설자재 실태를 확인한 후 제설대책반을 격려하고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 경사로와 그늘진 지역에 위치한 북구 신용동의 한 이면도로를 찾아 도로 적사함의 모래주머니 비치 상태와 스프레이 등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주변 등 제설 취약지역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를 정비·보완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11월의 공무원' 조현서 주무관 윤창모 사무관 선정



조현서 주무관 윤창모 사무관

광주시는 '11월의 공무원'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조현서 주무관과 교통정책과 윤창모 사무관을 선정해 3일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시상했다.

이들은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찬반 논쟁의 한가운데서 '공론화'를 통해 16년의 긴 여정을 끝마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민소통기획관 조현서 주무관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8월부터 업무를 맡아 공론화추진준비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지원 업무에 남다른 추진력을 보였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중립성을 가지고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차례 진통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공론화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공동 수상자인 윤창모 사무관은 교통정책과에서 철도정책을 담당하면서 2002년 이후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TV토론회, 간담회 등에 수차례 참여하고, 공론화준비위원회의 간사로도 선임돼 홍보전략 수립과 협상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도시철도공사 '미션·비전 선포식' 광주도시철도공사는 3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분사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을 위한 노사공동 '미션·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광주시 중서 자동차부품 상담회 1050만달러 수출협약

지역부품 업체 8개사 참여

중시장 개척 매년 상담회

광주시는 4일 "지난 11월 29일 중국 쑤저우시에서 중국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자동차부품 비즈니스상담회를 개최해 총 2건 105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품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즈니스상담회에는 (주)대경에이티(대표 유진열), (주)대경제이엠(대표 이명숙), (주)팜파스(대표 진용출), (주)남미전기(대표 김현화), (주)지알켄(대표 김재근), (주)효성테크놀로지(대표 임득춘), (주)진산인포시스(대표 장우석), 유아이정빌(대표 유종갑) 등 광주시 자동차

애프터마켓협회 소속 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중국 친환경자동차 판매 및 온라인 부품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위안바오타오처 등 바이어 30개사와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램프 등을 생산하는 (주)대경에이티는 중국기업 '체리 CHERY'로부터 구체적 품목과 수량이 명시된 리스트를 받고,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1월부터 광주시 자동차애프터마켓협회 WELLCAR 브랜드로 수출하기로 했다.

자동차 스마트 오일램프, 블랙박스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남미전기는 중국기업 '위안바오타오처'와 5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었다. 위안바오타오처는 빠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공장 등을 살펴보고 수출계약 및 추후 합작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는 기존 완성차 업체의 부품납품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 브랜드방식으로 성사된 수출협약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이번 행사가 사드 분위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광주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지역기업의 중국 시장개척을 위한 비즈니스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바이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강화 및 추가 바이어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비즈니스 상담회에 앞서 열린 중국진출 실무무역 세미나에서는 수출계약서 작성, 계약조건, 운송방법, 선적, 세관통관 등 구체적 내용을 사례 위주 강의로 실시해 기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올 구정 정책 베스트5' 뽑아주세요

남구 10일까지 구민 설문조사

광주시 남구가 올해 한해 선보인 각종 구정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추진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올해의 구정 베스트 5'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구 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응답하는 온라인 방식이다.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구정 정책 베스트5 선정을 위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38가지 정책 가운데 내부 심사를 거쳐 1차 평가를 통과한 10가지 정책을 압축했다.

설문조사 대상에 오른 정책은 ▲아이

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을 비롯해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햇 플레이스 양림 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이다.

또 ▲백운광장 침수 피해 없는 장기계획 실현 사업과 ▲구민 혜택 및 상생협력의 도시교류 추진 사업 ▲우리 동네 공기질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도 이름을 올렸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위 10가지 정책 중 올해 최고의 구정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 정책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남구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께 올 한해 최고의 구정 정책을 비롯해 5가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18일까지 폐기물처리사업장 특별안전점검

광주시 서구가 5일부터 18일까지 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고물상)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폐기물처리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화재 위험요인, 인화성 물질 보관처리 및 소화기 비치여부, 불법소각, 폐기물 적정 관리 등을 중

점적으로 확인한다. 위험요인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그동안 규모 1000㎡미만 비신고대상 폐기물처리사업장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어 신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양산동 본촌공원에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조성

광주 북구 양산동 343-1지 일원의 본촌근린공원에 북구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4일 '광주 도시계획시설인 본촌근린공원의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광주시 도시계획과,

북구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공원 전체 면적은 10만811.00㎡로, 이 가운데 커뮤니티센터는 4,798.00㎡, 주차장은 1,205.00㎡의 면적에 각각 들어선다. 준공예정일은 오는 2020년 12월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